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즌3 제1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99쪽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인문–예술 통합

키치에 대한 그린버그의 관점과 그에 대한 비판

지문 평가

(가)에서는 아방가르드와 키치에 대한 '그린버그'의 관점을 다룬다면, (나)에서는 그린버그의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전형적인 유형의 통합 지문인 만큼, 어떻게 글이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주로 물어볼지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

키워드

(가) 예술 – 미술 철학 – 그린버그

그린버그, 아방가르드, 전통 회화, 키치, 칸트, 자기비판, 매체, 평면성, 무관심적 관조, 심미적인 쾌, 피카소, 레핀

(나) 예술 – 미술 철학 – 그린버그, 형식주의 미학

형식주의 미학 이론, 마네, 인상주의, 추상 회화, 객관적 비평, 본능적인 쾌, 부르디외, 팝아트

(가) 문단 1 아방가르드의 필요성을 주장한 그린버그

1) 그린버그는 회화가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다고 보고, 회화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기성의 예술 관념을 부정하면서 혁신을 이끄는 예술 운동인 아방가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그린버그'는 '아방가르드'를 통해 회화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성의 예술 관념'은 회화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2) 그런데 그린버그가 간주하는 아방가르드의 적은 대상의 가상적 재현이나 주제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전통 회화의 경향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당대에 확산되던 '키치'의 위협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치란 상업적 목적의 천박한 모조품이나 대량 복제된 문화적 생산물을 말한다.

➡ '기성의 예술 관념'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상인 '전통 회화'를 아방가르드의 적으로 삼았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이때 그린버그가 문제 삼은 것이 그중에서도 '대상의 가상적 재현, 주제 전달'이었다는 점도 챙겨 두자.

✕✕ **주목** 그런데 그린버그는 과거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대상[→ 키치]까지도 아방가르드의 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키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의 적
회화의 본질 탐색	전통 회화, 키치 [→ 회화의 본질 ×]

맥락 짚기 첫 문단에서는 항상 글의 초점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아방가르드'가 찾으려는 '회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통 회화, 키치'는 어떤 점에서 그러한 본질을 갖지 못하였다고 보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곧 이 글의 초점이다.

(가) 문단 2 칸트에 따른 자기비판을 수용한 그린버그

1) 그린버그에 따르면 아방가르드의 역할은 칸트에게서 유래한 자기비판의 방법으로 회화의 고유 영역을 찾는 데에 있다. 자기비판이란 어떤 분야의 고유한 특징을 토대로 그 분야 자체를 비판하며 본질을 찾으려는 탐색이다.

➡ 그린버그는 '자기비판'을 통해 회화의 고유 영역을 찾아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고유 영역 = 본질'이다[문단1–1]. 회화가 자기 자신을 비판함으로써, 그 자신만이 갖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2) 그린버그는 각 예술이 고유하게 매체로 삼는 것을 탐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매체란 예술성이나 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재료나 매개물로서, 그린버그에 따르면 회화만의 고유한 매체 특성은 색면으로서의 평면성에 있다. 언어를 매체로 하는 문학이 주제와 내용을 본질로 하는 것과 달리, 평면성에 기초한 회화의 본질은 내용이 철저히 배제된 미적 형식들에만 있는 것이다.

➡ '그린버그'에 따르면 '회화의 고유 영역, 본질'은 매체의 특성인 '평면성'에서 찾을 수 있다.

맥락 짚기 '평면성'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회화의 본질을 '문학의 본질'과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제, 내용'과 구분되는 '미적 형식'이야말로 '평면성'의 핵심 의미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회화
본질	주제와 내용	평면성에 기초한 미적 형식

✕✕ **주목** 그린버그가 왜 '전통 회화'를 아방가르드의 적으로 간주하였는지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전통 회화는 '대상의 가상적 재현, 주제 전달'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문단1–2], 이는 결국에는 '주제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그린버그가 생각하는 회화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3) 이러한 관점은 일체의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태도인 무관심적 관조를 통해 순수한 형식이 불러일으키는 심미적인 쾌를 체험하는 것에 회화의 본질이 있다고 본 칸트의 입장에 닿아 있다.

➡ 회화의 본질은 칸트의 '무관심적 관조'와도 닿아 있다. 어떠한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모두 배제하고[→ 미적 형식을 제외한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 '미적 형식'에만 주목하여 느낄 수 있는 '심미적인 쾌'야말로, 우리가 회화에서 체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가) 문단 3 레핀의 회화에 대한 그린버그의 비판

1) 그린버그는 피카소의 회화는 추상적이어서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일깨우지만 지극히 사실적인 경향을 띠는 레핀의 회화는 키치와 같다고 평가했다. 전자는 순수한 형식들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에 대한 반추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심미적인 쾌를 주지만, 후자는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채워 줄 뿐이라는 것이다.

맥락 짚기 그린버그가 '아방가르드'로 찾은 '회화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그린버그가 '피카소'와 구분되는 '레핀'의 회화가 어떤 점에서 '키치'와 같다고 보는지[→ 어떤 점에서 회화의 본질을 잃어버렸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피카소'의 회화는 '추상화'이기에 대상을 가상적으로 재현하거나 주제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즉 회화의 본질인 '순수한 형식'이 불러일으키는 심미적인 쾌를 준다.

➡ 반면 '레핀'의 회화는 '사실적'이므로 '내용'을 배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를 통해 환기되는 쾌감도 심미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충족에 가깝다. 즉 '키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2) 레핀의 회화와 같은 것은 포스터처럼 누구나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이 파악되도록 한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특성을 지닌 키치는 가치 있는 문화에 둔감하고 문화를 오락으로 즐기는 데에 만족하는 대중의 사랑을 받지만, 이는 그저 기분 전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용 문화일 뿐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그린버그는 '아방가르드'와 '키치'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키치'는 포스터처럼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하기가 쉽고 대중의 단순한 오락이나 기분 전환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회화의 본질인 '순수한 형식이 불러일으키는 심미적인 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문화일 수 없고, '대용 문화'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아방가르드	키치
순수한 형식이 주는 '심미적인 쾌' ⇨ 이해하기 어렵다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 ⇨ 대용 문화[→ 이해하기 쉽다]

(가) 문단 4 키치에 대한 그린버그의 비판

그린버그는 전통 회화에 미약하게 남아 있던 미적 형식조차 사장될 수 있다며 키치를 경계했다. 아울러 상업적 이익을 위해 기만적 문화가 양산된다는 점, 키치가 내용의 강요를 통해 대중을 통제하는 관제문화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 그린버그가 지적한 '키치'의 문제점들이다. 그대로 이해하자.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내용의 강요를 통해 대중을 통제하는 '관제문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 즉 전통 회화의 경우 회화의 본질과 거리가 있기는 해도 미약하게나마 '미적 형식'을 지니고 있었는데, '키치'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사라지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라고 본 것이다.

(나) 문단 1 근대 회화의 흐름을 규명한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학 이론

1)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학 이론**은 마네, 인상주의, 입체주의를 거쳐 추상 회화로 이어지는 근대 회화의 흐름을 이론적으로 잘 규명해 준다. 그에 따르면 **마네**는 인물과 대상을 원근법에 어긋나게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회화의 본질이 주제나 내용이 아니라 평면성에 있음을 상기시켰고, 빛을 묘사하고자 했던 **인상주의**는 캔버스의 표면을 물감으로 두껍게 더해 물감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드러냈다.

➡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학 이론'에 비추어 근대 회화의 흐름을 정리한 내용이다. 즉 마네와 인상주의는 모두 회화의 본질이 매체 특성인 '평면성'에 기초한 '미적 형식'에 있음을 보여 준다[(가)의 문단2–2)].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가)의 내용을 (나)의 독해에 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가)에서 그린버그가 제기한 주장이 '형식주의 미학 이론'으로 정리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에서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기할지에 유의하면서 글을 읽어 나갔어야 한다.

2) 그린버그는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피카소[→ 입체주의]를 거쳐 대상에 대한 일체의 형상이 배제된 **추상 회화**에 이르는 과정이 재현의 점진적 배제와 평면성의 강화라는 회화의 내적 논리에 따른 발전 과정이었음을 보였다.

➡ 이러한 근대 회화의 흐름이 '회화의 내적 논리'와 닿아 있다는 것이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학 이론의 주장이다.

(나) 문단 2 객관적 비평과 그에 대한 비판

1) 나아가 그린버그는 이러한 형식주의 미학 이론을 미술 비평에 도입하여 회화 작품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는데, 작품의 외적 요소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형식에 주목하는 **객관적 비평**이 그 결실이다.

➡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학 이론'은 비평 영역에도 적용되어, '객관적 비평'으로 이어졌다. 이는 그린버그가 주목한 회화의 본질에 비추어, 작품의 '내용, 주제'는 배제하고, '미적 형식'에만 주목하는 비평 방법에 해당한다[(가)의 문단2–2)].

2) 다만 작품 이해나 감상에서 전문가의 의견만을 중시하고 일반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면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은 형식주의 비평이 치러야 할 대가이다.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대목이다. 그린버그의 미학 이론이 '비평 영역'에서 갖는 의의를 인정하되, 그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즉 '미적 형식'에만 비추어 이루어지는 비평이 갖는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독해의 초점이겠다.

➡ '비판'에 따르면 '객관적 비평'은 미적 형식에만 주목한다는 점에서, 결국 일반인이 작품을 마주하였을 때 주제, 내용에 대해서 느끼는 감상을 배제하게 된다. 즉 오로지 '전문가의 의견'만이 중시되는 결과를 낳는다. 미적 형식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 문단 3 그린버그의 자기비판에 대한 지적

1) 그린버그가 참된 자기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끊임없는 자기비판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아방가르드의 정신인데, 그린버그는 그저 형식에 주목하지 않는 모든 경향을 예술에서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 보다 날카로운 두 번째 '비판'이다. 아방가르드의 핵심은 '자기비판'에 있다[(가)의 문단2–1)]. 그런데 정작 '객관적 비평'은 미적 형식에만 비추어 비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해 '미적 형식'을 회화의 본질로 밝혔다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회화의 본질이 존재하는지를 끊임없이 자기비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멈춰 버렸다는 지적이다. 즉 '아방가르드의 정신'에서 오히려 멀어졌다는 것이다.

2) "순수하고 심미적인 쾌와 천박하고 **본능적인 쾌**를 구분하는 것은 곧 예술 향유자의 계층적 차별과 같은 사회 · 정치적 동기에서 유래한 것이다."라는 **부르디외**의 지적이 상기하듯이 키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지극히 편협하다는 것이다.

➡ '부르디외'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린버그가 '미적 형식'만을 유일한 회화의 본질로 규정한 것은[→ 회화로부터 '심미적인 쾌'를 떠올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옳고, '본능적인 쾌'를 떠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계층적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주목 여기서 '본능적인 쾌'는 앞서 아방가르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와 연결하여 이해하면 된다[(가)의 문단3–1)]. 즉 '심미적인 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나) 문단 4 아방가르드로서 키치의 의의

오늘날 상업적 목적으로 유명 이미지를 대량 복제하여 제작하는 **팝아트** 장르가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하고 대중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아방가르드와 키치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태도는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전통에 저항해야 한다는 그린버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형식만 강조하는 경향을 넘어서려는 키치 역시 새로운 잠재성을 보여 주는 아방가르드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두 번째 비판의 연장선에서, '키치'에 대한 그린버그의 관점을 다시금 비판하고 있다. 그린버그는 '미적 형식'이 사라진 '키치'로부터는 '심미적인 쾌'를 떠올릴 수 없다는 점에서 키치를 '회화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였다.

✕✕ 주목 반면 (나)의 글쓴이는 오히려 '팝아트'에서 엿볼 수 있듯이, 키치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들에서도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하는 아방가르드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키치야말로 '미적 형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회화의 본질을 모색하는 과정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는데, 기억에 남는 작품은 셋이다. 첫 번째 작품은 거대한 크기의 캔버스를 두 색면으로 채운 그림으로, 무엇을 그린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만히 보고 있자니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맥락 짚기 (가)의 그린버그[→ A]와 (나)의 글쓴이[→ B]의 관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각각의 작품들에 대해서 A, B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첫 번째 작품은 '추상화'로 일체의 형상이 배제되어 있고, 오로지 '색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내용, 주제가 아닌 '미적 형식'만을 강조한 것이다[(가)의 문단2-2)]. 따라서 A는 해당 작품으로부터 '심미적인 쾌'를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가)의 문단3-1)].

➡ 반면 B는 해당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든, '미적 형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해당 작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나)의 문단2, 3].

2) 두 번째 작품은 배를 끄는 남루한 하층민들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재현한 작품으로, 사회의 부조리한 면[→ 주제]을 전달하고 있어서 보는 내내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 두 번째 작품은 '사실적인 회화'이다. A는 내용,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전통 회화'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므로, 해당 작품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가)의 문단1-2)]. 즉 이 작품은 '본능적인 쾌'를 줄 뿐이지, '심미적인 쾌'는 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반면 B는 첫 번째 작품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해당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든, '미적 형식'으로만 구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점에서만 해당 작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나)의 문단2, 3].

3) 세 번째 작품은 유명한 캐릭터 이미지를 대량으로 복제하여 만든 팝아트 작품이었다. 작가의 의도를 알 수는 없었지만 재미있었고, 난해한 작품 감상에 따른 긴장과 피곤을 덜어 주어 편안한 느낌이 남았다.

➡ 세 번째는 '팝아트 작품'이다. A는 이러한 상업적 목적의 '키치'와 같은 작품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미적 형식'을 배제하므로, 그로부터 '심미적인 쾌'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③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A는 회화의 본질이 '작품의 내용, 주제'가 아닌 '미적 형식'에 있다고 보았다. 그로부터 '심미적인 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가)의 문단3-1)]. 다시 말해, '내용'은 심미적인 쾌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

➡ 반면 B는 '팝아트 작품'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잠재성을 보여 주는 아방가르드'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나)의 문단4]. 이를 통해 오히려 '미적 형식'이 아닌 새로운 회화의 본질을 모색해 낼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아방가르드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0~13] 기술

DBSCAN을 통한 이상치 판정

지문 평가

'이상치 판정'이 왜 필요한지, 이를 위해 사용되던 '전통적인 방법'의 한계가 새로운 방법인 DBSCAN에서는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읽어 내는 것이 관건인 전형적인 구성의 기술 지문이다. 충분히 수월하게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이상치, 이상치 지수, 밀도 기반 공간 군집화(DBSCAN), 차원 축소 변환법, 밀도 영역, 군집, 핵심점, 경계점, 이상점

문단 1 전통적인 이상치 판정

1)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대개 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수많은 데이터 중 오류로 인해 잘못 측정된 값이 포함된 데이터인 **'이상치'**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제거되어야만 한다. 보통은 정상에서 벗어난 정도인 **이상치 지수**를 각 항목에 대한 측정값들의 평균값, 중앙값 등을 토대로 정하고 그 값이 **임곗값**보다 큰 것을 이상치로 판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사용되곤 한다.

➡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정상 데이터'들만을 활용하여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즉 '이상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 이상치를 제거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상치 지수를 활용한 것으로, 정상 데이터와 이상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임곗값'이 필요하다.

> 이상치 지수 ≤ 임곗값 ⇨ 정상 데이터
> 이상치 지수 > 임곗값 ⇨ 이상치

2) 그런데 이상치의 사례가 극히 적어서 임곗값을 정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럴 때 정상 데이터들의 분포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인 **'밀도 기반 공간 군집화(DBSCAN)'**가 사용된다.

➡ '임곗값'을 정하려면 우선 충분한 양의 '이상치의 사례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무엇이 정상 데이터인지, 무엇이 이상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상치'의 사례가 극히 적어, '임곗값'을 제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맥락 짚기 그 대안으로 제시된 DBSCAN은 정상 데이터들의 분포만을 활용하여[→ 이상치의 사례들 없이도] 이상치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DBSCAN의 구체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곧 이 글의 초점이다.

문단 2 DBSCAN을 통한 이상치 판정

1) DBSCAN은 데이터들을 2차원 공간에 점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항목 두 개를 정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차원 축소 변환법**을 이용하여 여러 항목들의 측정값을 2차원의 또 다른 두 값으로 변환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맥락 짚기 이상치 판정을 위한 첫 단계는, 2차원 공간에 모든 데이터들을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2차원 공간의 세로축과 가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로축'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그리거나 떠올리면서 글의 설명을 쫓을 필요가 있다.

맥락 짚기 가로축, 세로축에는 각각 하나씩의 항목이 부여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1)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항목 두 개를 정함
> (2) 차원 축소 변환법

2) DBSCAN은 이 점들이 군집을 이루는지를 살펴 군집에 속하지 못한 데이터를 이상치로 판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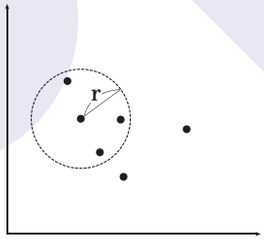
주목 DBSCAN이 이상치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DBSCAN은 군집을 생성하고, 그 군집에 속하지 않는 점들을 이상치로 판정한다. 이렇게 '임곗값'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치의 사례들'을 사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문단 3 DBSCAN을 통한 군집화

1) 군집 여부를 살피기 위해 DBSCAN은 반지름(r)과 최소 개수(m)를 정한다. 그리고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 **밀도 영역**을 정했을 때 그 영역에 중심의 점을 포함하여 m개 이상의 점들이 있을 경우, 이 점들을 **군집**으로 파악한다.

주목 '군집'이 어떻게 파악되는지에 관한 설명이다. '밀도 영역'과 '군집'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r이 정해지면 각각의 점을 중심으로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들이 그려지는데, 이것이 곧 '밀도 영역'이다.

➡ 문단2-1)에서 떠올린 그림에서부터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보기〉의 그림을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2차원 공간에 점들이 분포한다면, 그중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밀도 영역'을 그릴 수가 있다.



주목 여기서 m은 3으로 가정하자. 밀도 영역 안에 3개 이상의 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밀도 영역은 '군집'으로 파악된다. 만약 m이 5였다면 군집으로 파악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모든 점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밀도 영역'을 이루는데, 그 안에 충분한 개수의[→ m개 이상의] 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군집'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밀도 영역'은 '군집'이 될 수도 있는 일종의 '후보'에 해당한다.

2) 이 규칙을 따르는 DBSCAN은 모든 점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피며 각 점들을 핵심점, 경계점, 이상점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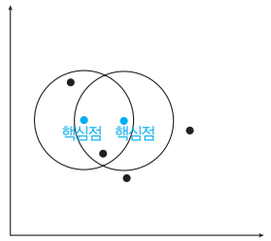
➡ 모든 점들을 하나씩 살핀다는 것은, 각각을 중심으로 '밀도 영역'을 정하고, 그것이 군집으로 파악되는지를 따져본다는 얘기다.

3) **핵심점**은 각 점을 중심으로 처음 군집 여부를 살폈을 때 그 군집의 중심에 해당하는 점으로 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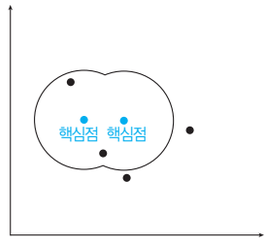
➡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정한 '밀도 영역' 안에 m개 이상의 점이 존재하여 군집으로 파악되었다면, 해당 중심점은 '핵심점'이 된다.

4) 이어 어떤 군집의 밀도 영역에 다른 군집의 핵심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두 군집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에 따라 하나의 군집에 핵심점이 여럿 존재할 수 있다.

➡ DBSCAN에서는 각각의 점을 순차적으로 전부 살피므로, 바로 그 옆에서도 군집이 형성될 수 있다[→ 핵심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핵심점은 기존 군집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두 군집이 겹쳐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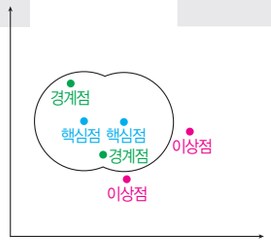
주목 이 경우에는 두 군집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게 된다. 이렇게 군집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핵심점'의 수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핵심점은 '처음에' 군집으로 파악되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핵심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군집'에 핵심점이 하나보다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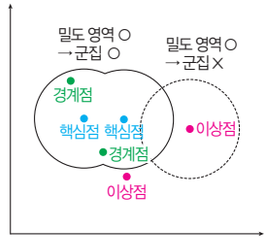
5) 이후 군집의 밀도 영역에는 속하지만 핵심점이 아닌 점을 **경계점**, 어느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점을 이상치에 해당하는 **이상점**으로 판정한다.

➡ '경계점'은 군집에 속하되, 핵심점은 아닌 점들을 의미한다.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점들은 '이상점'이라 한다. 이상점에 대응하는 데이터인 이상치들을 제거하는 것이 곧 DBSCAN의 목적임을 떠올렸을 때[문단1], 이상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 핵심점 ⇨ 정상 데이터
> • 경계점 ⇨ 정상 데이터
> • 이상점 ⇨ 이상치



➡ '이상점'은 주변에 다른 데이터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하지 않아서[→ m개 미만의 점들이 존재하여], 군집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밀도 영역의 점들을 의미하게 된다. 즉 '충분히 모여 있지 않은 동떨어진 점'들을 이상치로 간주하는 것이다.



참고 DBSCAN은 '이상치의 사례' 없이도[→ 어떤 '임곗값'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동떨어진 데이터들을 찾아서 '이상치'로 판정할 수 있다[문단1-2)]. '이상치'는 잘못 측정된 데이터인 만큼 정상 데이터들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문단 4 r과 m에 따른 이상치 판정의 문제

1) DBSCAN의 군집화 결과는 사용자가 정한 r과 m에 따라 달라진다. r이 클수록 군집의 크기는 커지고, m이 클수록 군집의 수는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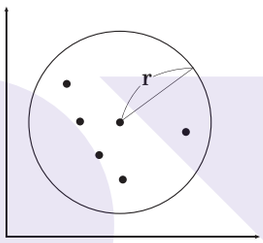
➡ r[→ 반지름]이 클수록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정한 군집의 크기는 커진다. 이 경우 다른 군집들과 겹쳐지기도 쉬워지므로[문단3-4)],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기도 쉬워진다[→ 더 큰 군집을 형성하기도 쉬워진다.].

➡ 반면 m[→ 군집을 형성하는 최소 개수의 점]이 클수록 각 밀도 영역을 군집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문단3-1)]. 군집으로 파악되기까지 더 많은 점들이 필요한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집의 수는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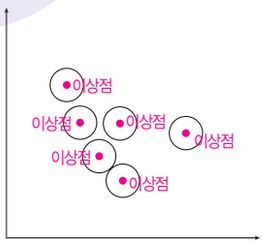
r↑ ⇨ 군집의 크기↑ m↑ ⇨ 군집의 수↓

2) r을 지나치게 크게 정하면 모든 데이터가 군집을 이루고[→ 모든 데이터가 핵심점, 경계점 중 하나가 되고], r을 지나치게 작게 정하면 모든 데이터가 이상치로 판정된다.

➡ r이 너무 크면 결국 하나의 밀도 영역에 모든 점들이 포함되므로,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군집에 속하게 된다. 즉 다른 정상 데이터들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이상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떠올리면 된다.



➡ 반대로 r이 너무 작으면, 결국 각각의 밀도 영역이 너무 작아져서 모든 점들이 '이상점'으로 판정된다.



➡ 따라서 r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값으로 정해져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3) 또한 주어진 데이터의 수에 비해 m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이상치의 판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

➡ m 또한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값으로 정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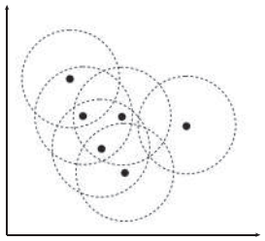
➡ m이 너무 크면[→ 극단적으로 1억이라면], 어떤 밀도 영역도 군집으로 파악되지 않을 것이다. 밀도 영역 안에 m개 이상의 점들이 존재해야만 군집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문단3-1)]. 따라서 모든 데이터가 '이상치'로 판정된다.

➡ 반대로 m이 너무 작으면[→ 극단적으로 1이라면], 모든 밀도 영역이 군집으로 파악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로 판정된다.

	너무 큰 r	너무 작은 m	너무 작은 r	너무 큰 m
문제점	모든 데이터가 '정상' ⇨ 이상치 ×		모든 데이터가 '이상치' ⇨ 이상치만을 제거할 수 ×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여섯 개의 점은 온도, 습도, 풍량에 대해 매일 아침마다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를 **차원 축소 변환법**을 거쳐 표시한 것이고, 점선으로 그려진 원들은 정해져 있는 반지름에 따라 각 점을 중심으로 그린 것이다[→ 밀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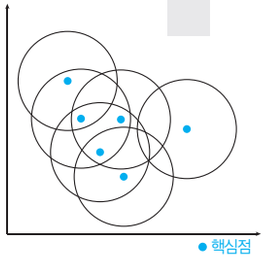
맥락 짚기 주어진 그림을 활용하여 각각의 점들이 '핵심점, 경계점, 이상점' 중 무엇으로 판정되는지를 이해하면 된다. 군집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r, m이 있다[문단3-1)]. 그런데 '밀도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 r은 고정된 값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m만을 고려하여 각 선지들을 따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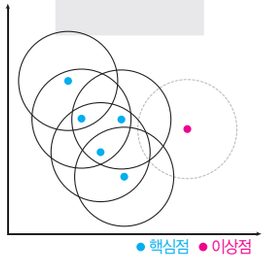
➡ 얻은 데이터들을 2차원 공간에 표현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문단2-1)]. 여기서는 '차원 축소 변환법'을 사용한 만큼 가로축, 세로축의 항목은 '온도, 습도, 풍량' 중 둘이 아닌, 어떤 새로운 값이 된다.

2) (단, 추가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이상치를 판정한다고 가정함.)

➡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 ②번 선지는 적절하다. m이 2 이하라면 m은 1이거나 2이다. 먼저 m이 1인 경우에는 왼쪽 그림처럼, 모든 점이 '핵심점'이 된다. 즉 경계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서 m이 2인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의 점만 이상점이 되고 나머지는 '핵심점'이 된다. 즉 여전히 경계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17] 사회

개별 소비세로 인한 초과 부담

지문 평가

'초과 부담'이 무엇을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그것을 과연 '중립세'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글의 흐름이 매우 선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글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한다.

키워드

사회 – 경제학 – 초과 부담

정부, 민간 부문, 정부 지출, 사회적 후생, 초과 부담, 개별 소비세, 소비자 잉여, 자원 비용, 수요의 가격 탄력성, 대체 효과, 대체재, 중립세, 일반 소비세, 수직적 공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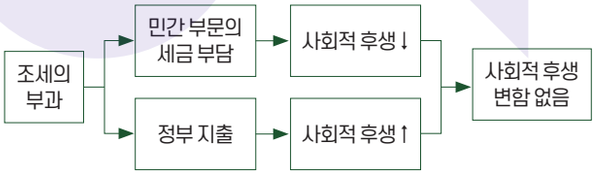
문단 1 초과 부담

1)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면 그만큼 **민간 부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그렇게 걷힌 조세가 **정부 지출**로 쓰이므로 **사회적 후생**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 상당히 밀도가 높은 문장이므로, 차근차근 이해해야 한다.

➡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민간 부문'은 그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후생↓]. 가령 조세를 100만큼 징수하면, 사회적 후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그 100만큼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 사회적 후생은 100만큼 다시 회복된다[→ 사회적 후생에는 변함이 없다.].

✕✕ 주목 '세금 부담'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지만, '정부 지출'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이 문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조세의 부과는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을 교란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 비효율성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민간 부문에 추가적인 부담인 **초과 부담**을 낳는다. 초과 부담은 조세 부과가 일으킨 실제의 부담에서 조세 징수액을 뺀 값과 같다.

✕✕ 주목 글의 초점이 '문제 제기'의 형태로 주어졌다. 조세의 부과는 '사회적 후생'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회적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로부터 '사회적 후생↓⇨ 사회적 비효율성'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곧 이 글의 초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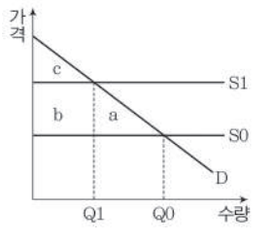
- 문제 상황 : 초과 부담
- 문제 원인 : 조세의 부과 ⇨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 교란 ⇨ 사회적 비효율성

맥락 짚기 '초과 부담'을 수식의 형태로 보여 주고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자.

초과 부담 = 조세 부과가 일으킨 실제의 부담 – 조세 징수액

문단 2 개별 소비세의 예시

1) 하나의 재화에 **개별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조세 부과 전후의 상황은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인 **한계 비용**이 일정하여, 공급 곡선이 수평선 모양을 띤다고 가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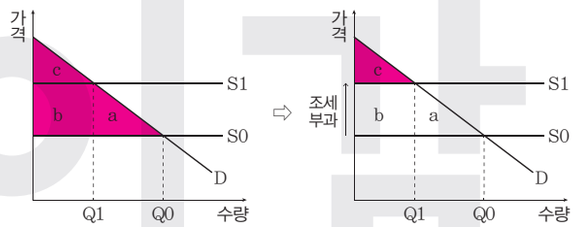


〈그림〉

맥락 짚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초과 부담'을 설명하려나 보다. 주어진 〈그림〉에 집중하자. '한계 비용'에 대한 설명은 단순화된 예시를 보여 주기 위한 부연 설명이므로, 적당히 받아들이고 넘겨도 그만이다.

2) 생산자는 부과된 조세만큼 가격을 올려 판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급 곡선은 S0에서 S1로 바뀐다. 수요 곡선 D에 따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Q0에서 Q1로 감소하는데, 그 결과 소비자 잉여는 면적 a, b, c를 합한 것만큼에서 면적 c만큼으로 줄어든다.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과 실제 구입 가격 간의 차이들을 모두 합한 것이다.

➡ 주어진 설명을 그대로 〈그림〉에 적용하면 된다. 즉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줄어든다.



3) 이렇듯 개별 소비세의 부과로 인해 이 재화의 소비에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순편익인 소비자 잉여 중 면적 a와 b를 합한 만큼이 줄어든다. 면적 b에 해당하는 만큼은 조세 수입으로 정부에 이전되어 사회적 후생에 기여하므로, 최종적으로 면적 a만큼이 민간 부문의 초과 부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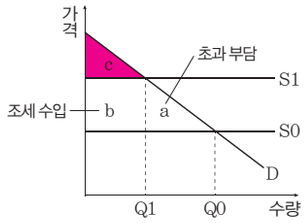
➡ '초과 부담'은 a만큼으로,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를 근거로, '조세 부과가 일으킨 실제의 부담'이 곧 'a+b'만큼임을 알 수 있다.

초과 부담[→ a]
= 조세 부과가 일으킨 실제의 부담[→ a + b] – 조세 징수액[→ b]

맥락 짚기 여기서 '소비자 잉여'가 '소비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순편익'으로 다시 설명되고 있음에 주의하자. 이렇게 수식어의 형태로 설명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특히 놓치기가 쉽기 때문이다.

✕✕ 주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의 부과는 본래대로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민간 부문의 세금 부담[→ b]만큼이 다시 정부 지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상쇄되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민간 부문의 초과 부담[→ a]이 발생하고, 이 부분은 상쇄되지 않아서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문단 3 초과 부담의 원인

1)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낳는 의사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조세를 더한 가격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리고,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에서 조세를 대신 납부하고 남은 부분인 기존 가격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린다.

➡ 조세의 부과가 '사회적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을 교란'하기 때문이다[문단1-2)]. 먼저 소비자는 '조세의 부과'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조세를 더한 가격[→ S1]을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

➡ 반면 생산자는 어차피 조세를 그대로 정부에게 납부하므로[→ 인상한 가격 만큼을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가격[→ S0]을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

✕✕ 주목 이렇듯 민간 부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달라져서 '의사 결정 교란'이 나타나는 것이다.

2) 이렇듯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 S1]이 이상적인 자원 배분 시의 재화 생산 비용인 **자원 비용**[→ S0]보다 커짐에 따라 가격 구조에 교란이 나타나 초과 부담이라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 이때 기존 가격[→ 조세가 부과되지 않은 가격]이 곧 '이상적인 자원 배분'에서의 가격이라는 사실도 함께 파악해 두자.

3) 초과 부담의 정도는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 세율↑, 수요의 가격 탄력성↑ ⇨ 초과 부담의 정도↑

문단 4 대체재 관계에서의 초과 부담

1) 대체재 관계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변하는데, 이러한 **대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대체재일수록 두 재화 중 하나에만 개별 소비세가 부과됐을 때 초과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전환되는 대목이다. '초과 부담의 정도'는 '대체 효과'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왜 그러한지를 이해해야만, 초과 부담의 해결 방안도 도출될 수 있겠다.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 대체 효과↑ ⇨ 초과 부담의 정도↑

2) **대체재**란 사과와 배처럼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말한다. 소비자들은 대체재인 두 재화의 최적의 상대 가격 비율을 고려하여 소비하는데, 조세로 인해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가 커질수록 초과 부담도 커진다.

➡ 한마디로 '조세의 부과'는 대체재인 두 재화의 '상대 가격 비율'을 변화시킨다. 이는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을 교란시키기 때문에[문단3], 더욱 큰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 주목 대체재 관계인 두 재화 중 하나에만 개별 소비세가 부과될 때의 결과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 두 재화 중 하나에만 개별 소비세 부과 ⇨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
> [→ 최적의 상대 가격 비율과의 차이↑] ⇨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 교란
> ⇨ 초과 부담↑

3) 반면 두 재화 중 하나에 이미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던 상태에서 다른 한 재화에도 비슷한 세율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면 초과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만약 다른 한 재화에도 비슷한 세율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면,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는 줄어든다. 그렇다면 '초과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문단 5 초과 부담의 해결 방안

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과 부담이 나타나지 않는 조세인 **중립세**가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맥락 짚기 '초과 부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립세'가 제안되고 있다. '문제 원인'을 고려했을 때, 중립세가 어떻게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을 교란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 문제 상황 : 초과 부담
> • 문제 원인 : 조세의 부과 ⇨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 교란
> ⇨ 사회적 비효율성
> • 해결 방안 : 중립세

2) 가령 모든 재화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가 중립세의 사례로 거론되곤 한다. 일반 소비세는 재화 간의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 개별 소비세로 인해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이 교란되는 것은 '재화 간의 상대 가격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문단4-2)]. 달리 말하면, '재화 간의 상대 가격 비율'이 달라지지 않으면, 민간 부분의 의사 결정이 교란되지도 않는다.

✕✕ 주목 그런데 '일반 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부과되므로, '재화 간의 상대 가격 비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초과 부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 일반 소비세 부과 ⇨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 ×
> ⇨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 교란 × ⇨ 초과 부담 ×

3) 그러나 재화들의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 잉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소비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구매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모든 이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비효율성을 낳는다.

✕✕ 주목 '일반 소비세'는 초과 부담을 없앨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사회적 비효율성'을 낳는다.

➡ '상대 가격 비율'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문단2-2)].

➡ 또한 개별 재화가 아닌,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 셈이므로 소비자는 과거에 비해 더 적은 양의 재화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매력'도 낮아진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여가 시간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최적의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는 여가 시간의 효용 대비 근로 시간의 효용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득세는 엄밀히 중립세라 보기 힘들며, 일반 소비세 역시 완전한 중립세는 아니다.

주목 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립세'의 목적은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을 교란하지 않는 데에 있다. 그런데 소득세는 '여가 시간'과 '근로 시간'의 상대적 효용을 변하게 하여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교란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중립세'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5) 중립세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인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낳는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어떤 가상의 국가에 **재화 A**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생산자 갑**, **재화 B**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생산자 을**, 그리고 **병**을 비롯한 다수의 소비자가 있다고 하자.

맥락 짚기 '초과 부담'과 관련된 단순화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자, 소비자' 양측이 주어졌으니,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이 어떻게 교란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 국가는 **정부 지출**로 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려 한다. 만약 A에만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A와 B는 가격 비율이 기존의 4:3에서 3:2로 바뀐다.

➡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개별 소비세'로 인해 대체재 관계에 있는 A와 B의 상대 가격 비율이 변화한다는 점이 핵심이다[문단4-2)].

> A에 개별 소비세 부과 ⇨ A와 B의 상대 가격 비율의 변화 ↑
> ⇨ 병의 의사 결정 교란 ⇨ 초과 부담 ↑

주목 생산자 갑과 을은 '기존 가격'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A와 B의 가격 비율을 4:3으로 인식한다면], 소비자 병은 '조세를 더한 가격'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A와 B의 가격 비율을 3:2로 인식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의사 결정이 교란되는 것이다[문단3].

3) 단,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은 극대화된 상태에 있으며, 그 이전에 부과되던 조세는 없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 국가의 조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생산자가 그만큼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문제가 성립하기 위한 단서들이다.

∴ ⑤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개별 소비세가 아닌 '일반 소비세'가 부과되면 A와 B의 상대 가격 비율이 변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비효율성'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 소비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소비자들이 얻는 순편익인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문단5-3)].

[18~21] 고전소설

「방한림전」

– 작자 미상 –

작품 평가

이 작품은 여성 영웅 소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점을 지니고 있다. 여성 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장원 급제하여 대원수로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뒤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은 다른 여성 영웅 소설과 다를 바 없지만, 여성 주인공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간다는 모티프는 다른 여성 영웅 소설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이 작품의 독특한 문제의식을 찾아내곤 한다.

[앞부분의 줄거리] 남장 여자로 과거 급제한 방관주는, 남성에게 종속되는 혼인을 거부하고 대등한 동반자를 원하던 영 소저와 혼인하여 벗으로서 함께 산다. 우연히 갓난아기를 얻어 아들로 삼아 키우던 그는, 이후 아들을 김 소저와 정혼하게 한다.

방 상서 내당에 들어오니 영 부인이 맞아 말씀할새, 상서가 김씨 가문과의 혼사를 말씀하니 부인 또한 기뻐하더니, 문득 유모가 와서 길게 세 번 탄식하고 이르되,

"상공과 부인이 매사 이리 즐거워하시니, 기둥에 불이 붙었는데 제비와 참새는 모른 채 즐거워한다는 말[→ 당면한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희희낙락하는 어리석은 인간을 제비와 참새에 빗대어 풍자한 말]이 바로 이와 흡사하도다. 만물이 다 초목(草木)과 금수(禽獸)조차 음양(陰陽)이 서로 어울림이 떳떳한 일이거늘, 상공과 부인은 부부의 인륜(人倫)[→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을 사절하시고 이십 세가 지나셨으니 두 소저의 아름다운 젊음이 아깝고, 또 위로 연로하신 부모의 장차 제사를 받들 자손 없음이 근심스럽나니[→ 부모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라는 말이다.] 훗날의 일이 어찌되리이까? 더욱이 부인은 지금껏 상공과의 실상을 부모께 고하지 않으시고 손목의 주표(朱標, 꾀꼬리의 피로 문신하여 나타내던 처녀의 징표)를 내내 감추면서 다만 우연히 자제가 생기지 않는 체하시니[→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을 우연한 일인 척 지내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손목의 주표를 감추는 이유는, 그것을 보면 부부 관계가 없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괴이하지 않으리이까? 원컨대 양위 주인은 계교를 생각하시어 한 군자(君子)를 얻으사 아황과 여영(= 중국 고대 요임금의 두 딸로서 순임금과 혼인한 인물) 자매같이 하심[→ 한 남자를 만나 그의 두 부인으로 사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 첩이 누설하고자 하나 상공이 하 고집하시니 발설이 어려워 지금껏 함구하고 있으나,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이까? 소공자[→ 방관주와 영 소저가 얻은 아들. 이름은 '낙성'이다.] 오래지 않아 부인을 얻으려니와, 우리 상공과 부인은 어느 시절에 인륜을 차릴꼬."

➡ 남들을 속이고 동성 간의 부부 생활을 하는 방관주와 영 부인이 아들 낙성의 정혼을 두고 기뻐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모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부인은 수려한 눈에 즐겁지 않은 빛이 비치며 아름다운 눈썹을 찡그리고 정색하며, 상서는 눈을 부릅뜨고 꾸짖어 왈,

"할멈이 어찌 듣기 싫은 말로 즐거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외인(外人)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의 의심을 더하게 하느뇨? 만일 괴이한 소문이 난다면, 비록 젖을 먹여 품속에서 키운 은혜 있으나 결단코 용서치 않으리라."

➡ 방관주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모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비밀 유지에 철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가 자신을 키워 준 유모에게 이렇게까지 큰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유모의 말이 거슬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남장 여자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말을 마치며 눈썹을 치켜올리고 노기등등하니, 유모 하릴없이 물러나더라. 부인이 냉소하며 왈,

"문백(= 방관주의 자(字)) 형(兄)은 어찌 이런 일로 유모를 질타하시느뇨? 유모 단지 주인을 위한 충심에서 한 말이니,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 영 부인이 남편을 '자[→ 문백]'로 부른 것은, 방관주와 대등한 부부 사이로 지내고자 한 평소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농담 같은 성격을 띤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이 시대에 사람을 그의 '자'로 부르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지, 부인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상서 눈을 흘겨 영 부인을 바라보며 왈,

"부인이 여도(女道, 여자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를 알지니, 어찌 가장(家長)의 자를 함부로 부르느뇨? 부인의 일이 가히 옳은가?"

영 부인이 낭랑히 웃더라.

➡ 방관주가 자신의 '자'를 부른 영 부인에게 남녀의 도리를 강조하며 따지자, 영 부인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분위기를 무마하고 있다. 참고로, 작품 전체에서 방관주는 영 부인(영혜빙)과의 일상에서 남녀의 도리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는 자신들의 비밀 유지에 철저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남장 여성임에도 가부장적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 또는 남성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의식 때문에 오히려 남성의 역할에 집착하는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영혜빙은 방관주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 자신과 방관주가 대등한 벗임을 방관주에게 상기시키곤 한다.

(중략)

➡ 중략 부분에서 방관주는 벼슬이 상서에서 승상으로 오르고, 아들 낙성은 김 소저와 혼인한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방관주에게 어느 날 도사가 찾아와 관상을 봐 준다.

도사 말을 마치며 일진청풍(一陣淸風)이 되어 간곳없고, 다만 꽃부채 하나 놓였더라. 집어 본즉 도사의 글이니, 그 글에 왈,

"음양을 바꾸어 임금과 세상을 속이매 그 벌이 없지 않으리로다[→ 여자로서 남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 임금과 온 세상을 속였으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궁에 있을 때 여색(女色)을 좇아 방자하였기에 금생(今生)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끊었으니[→ 현생에서의 방관주의 삶이 전생의 죄로 인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그의 삶은 하늘에서 내린 형벌로 그려지는 것이다.], 스스로의 죄를 아는가? 그릇이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느니, 옥황상제께서 옛 신하[→ 방관주]를 보시고자 하시는도다. 원컨대 공(公)은 내년 삼월 초사일에 옥제를 뵙도록 하라[→ 방관주가 옥제를 뵙는다는 것은 그가 죽어 천상계로 돌아감을 뜻한다.]."

하였더라. 방 승상이 보고 앙천 탄식 왈,

"내 일개 아녀자로서 남자 행세를 함이 이미 오랜지라, 어찌 천벌이 없으리오?[→ 남장 여성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태평함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온다 하였으니 한번 돌아가 상제를 뵈옵고 부모를 만남이 소원이나[→ 죽어서 천상계로 돌아가 옥황상제를 뵙고 어릴 때 죽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원했던 바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부인이 나로 인하여 부부의 인륜을 알지 못한 채 젊음을 헛되이 보내니 가련하구나. 너무 맑아 부부의 도를 괴로이 여기는 사람이라 다만 서로 기대하여 한날한시에 죽기를 바랐더니, 이제 내 죽으면 그 누구를 의지하리오? 가련하고 슬프도다[→ 자신이 죽고 나서 혼자 남게 될 영 부인을 걱정하며 슬퍼하고 있다.]."

안석에 의지하여 하늘가를 바라보며 생각하매, 남아(男兒) 못 된 것을 슬퍼하더라.

초가을 팔월에 김 소저[→ 방관주와 영 부인의 며느리] 또 아들을 낳으니 아름답기 옥(玉) 같아 첫째와 다름이 없으니, 승상과 부인이 대희하더라.

안타깝도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죽을 날이 다가온 방관주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해가 끝나고 이듬해 봄이 되니[→ 방관주가 죽을 시일('내년 삼월 초사일')이 임박하니], 승상이 대연(大宴, 큰 잔치)을 베풀고 삼일 동안 온 조정의 관리와 옛 친구, 친척들을 불러 즐길새, 승상이 다시는 이같이 경사스러운 잔치를 보지 못할 것을 슬피 여겨 옥 술잔을 잡고서 처량히 비가(悲歌)를 읊으니, 옥 같은 음성이 청아하고 낭랑하여 흘러가던 구름이 멈추고 봉황이 마주 대하여 춤을 추는 듯하나, 보는 사람이 자연히 슬퍼하며 근심스러워하더라.

➡ 방관주가 큰 잔치를 연 것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막상 초대한 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들과 함께 이렇게 즐길 기회는 다시 안 올 것이라는 생각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그 감정을 노래로 표출한 것이다.

승상이 안색이 바뀌며 눈물을 글썽이니, 모두가 놀라 왈,

"공이 바야흐로 청춘이시거늘, 어찌 이렇듯 불길한 시를 읊고 노래하시나이까?"

➡ 초대된 사람들은 방관주가 왜 슬픈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글썽이는지, 그 내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의아해하는 것이다.

승상이 슬픈 낯빛으로 답왈,

"제가 본디 기질이 약하고 질병이 있어 인간(人間)에 오래 머물지 못할지라[→ 자신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도, 그 이유는 밝히지 못해 거짓으로 둘러대는 것이다.]. 비록 청춘이나 생각건대 다시 이같이 즐기지 못할지니, 자연 슬픈 마음으로 가사를 지어 공들의 염려를 샀음이라."

인하여 술과 음식을 밀어 놓고 안석에 의지하여 슬퍼하며 흐르는 눈물로 소매를 적시니, 모든 사람이 불길하게 여기며 다만 위로하더라.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7] 현대소설

(가) 「탁류」

– 채만식 –

작품 평가

이 작품은 1937~1938년에 걸쳐 신문에 연재된 소설이다. 수록된 부분은 큰딸 초봉이를 혼인시켜 사위로부터 덕을 볼 생각을 하는 정 주사 부부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심리와 서술자의 독특한 서술 방식에 주의하며 읽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끼니를 거를 만큼 궁핍한 형편의 정 주사는 은행원 태수가 부잣집 아들이며 혼인 비용과 처가의 사업 밑천까지 부담할 테니 딸과 결혼시키라는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그가 혼기를 넘긴 이유에 대한 의혹을 애써 억누른 채 좋은 혼처를 찾은 것이라며 기뻐한다.

자자에 관주(= 글이나 시문의 모든 글자마다 잘되었다고 평하는 표시를 함)다[→ 정 주사가 사윗감으로서 태수의 조건들 전부에 좋은 평가를 내렸음을 뜻한다.].

태수의 눈찌(= 흘겨보거나 쏘아보는 눈길)가 좀 불량해 보이는 것이랄지, 사람이 반지빠르고(= 말이나 행동 따위가 어수룩한 맛이 없이 얄미울 정도로 민첩하며 약삭빠르고) 건방져 보이는 것이랄지, 더욱 무엇보다도 마음 찜찜한 구석은 그가 조건 붙은 새장가를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미심다운 것[→ 태수가 초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비용과 처가의 사업 밑천까지 대겠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러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모른 체하고 슬슬 넘겨 버린다.

죄다 관주를 주어 놓고서, 정 주사는 어떻게 해서 누가 준 관주라는 것은 상관 않고, 사윗감이 관주인 것만을 기뻐한다.

아들놈이 여느 때에 공부를 잘 못 하는 줄을 알면서도, 통신부의 성적이 좋으면 기뻐하는 게 부모다. 이거야 선량한 어리석음이구나 하겠지만, 정 주사는 그러한 인정이라 하기도 어렵다[→ 정 주사가 태수를 좋은 사윗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딸을 사랑하는 선량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계산속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라는 뜻이다.].

➡ 정 주사는 태수의 단점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나 '찜찜한 구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태수가 제공하려 한다는 경제적 이점 때문에 그를 놓치기 싫은 것이다. 정 주사는 자신이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태수를 높이 평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혼처가 나타났다고 흡족해하고 있다.

아무튼 그래서 정 주사는 시방 크게 만족하여 가지고 콩나물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이 콩나물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초봉이의 혼인과 및 그 결과에 대해서 공상을 했었고, 하던 그대로 모든 일이 맞아떨어진 기쁨을 안고서 오늘은 이 고개를 넘느니라 생각하면, 이놈 콩나물고개란 놈이 신통한 놈이로구나 싶어 새삼스럽게 좌우가 둘러보여지는 것이다.

"자아, 그래서 돈이 생기면……."

느긋하게 궁리를 하면서 정 주사는 천천히 집을 향하고 걸어간다.

대체 얼마나 둘러(= 구해) 주려는고? 한 오륙백 원? …… 오륙백 원 가지고야 넘고 처져서 할 게 마땅찮고…… 아마 돈 천 원은 둘러 주겠지. 혹시 몇천 원 척 내놓을지도 모르고.[→ 아직 혼인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딸의 결혼을 통해 생기게 될 사업 밑천을 헤아리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데, 무슨 장사를 시작한다? …… 싸전? 포목전? 잡화전? …… 그런 것은 이문이 박해서 할 것이 못 되고…….

가만히 미두(= 이전에, 쌀, 콩 따위의 곡물을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현물 없이 약속으로만 거래하던 일종의 투기 행위)를 몇 번 해 보아? 그래서 쉽게 한밑천 잡아?[→ 참고로 정 주사는 미두를 하다가 재산을 탕진했으며 현재도 미두장에서 하바(미두장 주변에서 미곡의 시세 변동을 예측하여 서로 소액의 내기를 붙는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처지다.]

에잉! 그건 못쓰지. 그랬다가 만약 실수나 하고 보면, 체면도 아니려니와 모처럼 잡은 들거린데[→ 사업 밑천인데] 방정을 떨어서야…….

그러면 무얼 해야만 하기도 수나롭고(= 수월하고) 이문도 박하잖고 두루 괜찮을꼬?

➡ 정 주사는 딸이 결혼하면 생기게 될 돈으로 어떤 장사를 해야 자신의 형편이 펴게 될 것인지 궁리하고 있다. 이 궁리에서도 정 주사가 착실한 인물이 아니라 허황되게 욕심만 큰 인물임이 드러난다.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익은 많이 남았으면 싶고, 그래서 노름이나 다름없는 미두에 자꾸 마음이 쏠리는 것이다.

(중략)

그들은 진실로 이러하다. 그들은 딸자식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나머지 권솔(= 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이 목구멍을 도모하겠다는[→ 먹고 살겠다는] 계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행하고 할 담보(= 겁이 없고 용감한 마음보)는 없다. 가령 돈 있는 사람을 물색해 내서 첩으로 준다든지, 심하면 기생으로 내앉히거나 청루(靑樓, 창기들이 있는 집)에다가 팔거나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정 주사 부부가 가족을 위해 딸을 직접적으로 희생시킬 만큼 뻔뻔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낡은 것이나마 교양이라는 것이 있어서 타성적으로 그놈한테 압제를 받기 때문이다.

교양이 압제를 주니 동물적으로 솔직하지 못하고 인간답게 교활하다.

➡ 정 주사 부부가 딸을 직접 팔거나 하지 못하는 것은 인륜 같은 도덕관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딸을 직접적으로 희생시키는 대신, 딸 당사자의 행복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적 조건만을 따져 혼인을 시키려 하는 것이다.

해서, 정 주사네는 시방 태수와 이 혼인을 함으로써 집안이 셈평(= 생활의 형편)을 펴게 된 이 끔찍한 행운을 당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혼인이 장차에 딸자식을 불행하게 하지나 않을 것인가 하는 의구를 일으켜 가지고 그 의구가 완전히 풀리기까지 두루 천착(= 어떤 원인이나 내용 따위를 따지고 파고들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함)을 해 보기를 짐짓 그들은 피하려 든다. '사실'이 무섭고 무서운 소치(= 까닭)는 너무도 '사실'이 뚜렷하고 보면 차마 혼인을 못 할 것이므로다.

➡ 서술자가 정 주사 부부의 심리를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 주사 부부가 태수를 사위 삼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기면서 태수가 딸에게 적합한 신랑감인지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따져서 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만약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태수와의 혼인을 강행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미 악취가 나는 것도 그것을 번연히 코로 맡고 있으면서 실끔 외면을 하고는, 하나가 혹시,

"어찌 좀 퀴퀴하우?"

할라 치면, 하나가 얼른 내달아,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아냐, 구수한 냄새를 가지고 그리는구려."
하고 달래고, 그리다가 또 하나가,
"그런데, 어쩐지 좀 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군!"
할라 치면, 하나가 서슬이 시퍼래서,
"향깃허구면 그리시우!"
하고 세수빠진 소리를 하는 것을 지천(= 지청구.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을 하던 것이다.

➡ 이 부분은 정 주사 부부가 나누는 실제 대화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 태수에 대해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점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또 그런 태도를 서로 부추기고 있음을 가상의 대화로 표현한 부분이다. 이 대화 속에서 그들 부부는 분명한 악취를 느끼면서도 냄새가 난다는 것을 부정하도록 서로 부추기고 있다. 이런 서술 방식을 통해 정 주사 부부의 태도가 풍자되고 있다.

이렇듯 사리고 조심하여 눈을 가리고 아웅한 덕에, 내외의 의견은 더 볼 것도 없이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 결국 딸을 태수와 혼인시키는 데 부부의 의견이 합치했다는 것이다.

[32~34] 현대시

「참회록」

– 윤동주 –

작품 평가

일제 강점기 말 윤동주의 다른 많은 작품처럼 「참회록」 역시 시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작품이다. 시어의 상징성, 전후 맥락에 따른 의미 등을 생각해 가며 읽자.

제 1연 구리 거울 속에 비친 욕된 '나'의 얼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 유리가 아니라 구리로 된 거울, 더구나 '파란 녹'이 낀 거울이니, 아주 오래전의 시대에 쓰이던 거울을 의미한다.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 왕조가 쇠망함]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 화자는 거울에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은 흔히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는 의미를 갖는데, 화자는 녹이 낀 거울에 비친 자신을 구리 거울과 마찬가지로 욕된[→ 치욕스러운]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으며 윤동주의 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낯익은 정서이다.

제 2연 지나온 삶에 대한 현재의 참회록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 화자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 화자는 지금 만 24세이다. 화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자신의 삶을, 무슨 기쁨을 얻겠다고 이렇게 살아왔느냐는 한마디 물음으로 요약하고 있다. 아무런 기쁨도 바랄 수 없는 삶, 이 '참회'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보인다.

제 3연 미래에 쓸 참회록의 내용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미래의 어느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제2연과 같은 참회의 글을 쓰는 현재]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 미래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다시 '참회록'을 쓸 때에는, '부끄런 고백'을 했던 것에 대해 반성할 것이라는 말이다. 즉 자신이 지금은 제2연에서처럼 아무런 기쁨도 기대하지 않는 삶에 대해 고백하고 있지만, 미래의 '그 어느 즐거운 날'에는 현재의 참회가 '부끄런 고백'에 불과했다고 여기며 지금의 이 슬픈 삶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려면 '그 어느 즐거운 날'이 반드시 와야 하므로, 화자는 긍정적인 미래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제 4연 거울을 열심히 닦는 현재의 '나'

밤이면 밤마다[→ 성찰의 시간]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치열하게 노력하는 화자의 의지].

➡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자기 얼굴을 제대로 비춰 보기 위해서는 그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성찰의 매개체인 '거울'을 매일 밤 닦는다는 것은 치열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바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만 제3연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자신의 삶을 떳떳하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5연 깨끗해질 거울 속에 비친 미래의 '나'의 모습

그러면[→ 거울을 열심히 닦아 깨끗해지면] 어느 운석(隕石, 지구상에 떨어진 별똥)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

➡ '운석 밑으로' 걸어간다고 했으니 '운석'은 아직 화자의 머리 위에 있는, 떨어져 내리고 있는 별똥별인 셈이다. 죽음 또는 소멸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슬픈 사람[→ 화자 자신]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자신에 대해 열심히 성찰하면서, 외롭지만 꿋꿋하게, 별똥별과 같이 한순간 빛을 발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질 존재. 그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암흑의 시대에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화자가 스스로 가야 할 삶의 길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